

기혼남성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A study of Personality Type and Coping Styles on Conflict of Married Men,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 영 숙**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인간환경복지연구소

교수 박 경 란

School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ersity

Professor : Yeong Sug Yi

School of Human Counseling and Welfare, Inje University

Professor : Kyung Rhan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husbands' personality types and coping styles on conflict on their satisfaction in marriage lif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influences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is their own coping styles on conflict such as integration and compromis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education', 'duration of marriage', 'income' and 'personality types', 'extraversion' or 'introversion', came next in order. Second,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is affected with the strategies they employ in conflict situations. In particular, the strategies as 'integration' and 'compromise' proved to be effective in getting rid of conflicts in marriage life. Third, husbands' 'demographic variables' affect their marital satisfaction. Those who were educated more wealthily and better have a tendency to have fuller marital satisfaction. The longer they had been married, the less they appeared to b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s. Fourth,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is closely related to whether they are extroversive or introversive. Extroversive husbands have more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personality type, conflict coping styles, marital satisfaction

I. 서론

가족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이 두 사람이 적응해나감에 발달해간다. 가족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잘 적응하는 경우는 결혼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부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불행한 삶을 유지하기도하고 때로는 법적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만족스런 결혼생활은 부부 각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인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들과 관련되는 가족, 직

장,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만족스러운 가족생활이 안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이미 공인된 사실로 개인의 결혼생활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예로 보여진다. 최근에는 부부관계의 만족도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남성들의 직업생활에 있어서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이요행 등, 2005), 부부관계 유대가 좋을수록 남성의 사회적 위기 정도가 낮다는 사실(고기숙, 이혁구, 2004)이 밝혀져 기혼남성이 가족환경특성에 의한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의 만족 여부가 개인이나 가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군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Yeong Sug Yi
Tel: 063) 469-4623, Fax: 063) 469-4620
E-mail: ysyi@kunsan.ac.kr

나라 사회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지금까지 결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은 주로 결혼만족도, 결혼의 질, 결혼적응이라는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연구되어 왔으며(Bradbury et al., 2000; 이선희, 2000; 오선주, 2002; 김명준 등, 2003), 성격은 오랜 동안 부부관계의 질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되어져왔다. 실제로 결혼하게 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하게 가치를 두는 요인으로 남녀 공히 성격을 꼽고 있으며, 또한 2007년도 이혼한 부부의 주된 이혼사유가 성격차이(46.8%), 경제문제(13.6%)의 순으로 나타난 통계청 자료(2008)를 통해서도 결혼생활의 만족이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격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성격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유형(type)으로 정의하거나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의 성격특성(traits)으로 보고 조사한 연구들로 구별되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결혼생활의 질에 관련된 변인으로 개인적 특성 이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대처방법과 같은 관계적 특성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되었다(강학중·유영주, 2003; 김영희·정선영, 2007; 최혜경·노치영, 1994).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관계적 변인 중 일부와의 관계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일부 연구들(예: 이하식·김경연, 2005)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여성에 초점을 기울여왔다. 이는 이전의 성분리화와 성불평등 때문에 결혼생활에서의 경험이 남녀 간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결혼불만족(예: 김민녀·채규만, 2006), 결혼부적응(예: Lussier & Sabourin, 1999), 및 갈등(예: 오선주, 2002)을 더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여성의 개인 및 가족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간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남성들 역시 결혼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편의 결혼생활의 부적응은 부인의 결혼생활 지각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박영화·고재홍, 2005) 만족한 결혼생활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 자신의 성격과

갈등대처방법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혼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갈등대처방법 및 결혼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기혼남성의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은 어떠한가? 셋째, 기혼남성의 갈등대처방법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어떠한가? 넷째, 기혼남성의 성격유형과 갈등대처방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특히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과 갈등대처방법은 무엇인지를 밝혀 실제 부부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활용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Beach et al., 2003), 이에 대한 정의도 학자마다 다양하나 크게 두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하나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만족도 사이의 비교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다(정승혜, 1988). 관련문헌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차원에서 결혼만족도를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은경·정혜정(2002)은 결혼만족도는 아주 만족에서 아주 불행함에 이르는 연속선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결혼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조유리와 김경신(2000)은 '결혼생활 전반에 있어 부부의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로 보았으며, 김민녀와 채규만(2006), 한혜영과 현명호(2006)은 '결혼생활에 대한 부부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기혼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생활의 조건은 경제적 여유, 애정표현, 성적 만족, 종교·정치 등에 대해 부부의 유사한 신념, 상호신뢰하기, 가사공유, 자녀양육, 중요한 것에 대한 대화, 애착, 서로에 대한 감정공유, 상호돌보기, 부부관계지속에 대한 확신, 함께 지내기 등으로 나타난다(Acitelli et al., 2001). 이는 개인의 제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고찰하여 온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교육수준, 결혼기간, 그리고 경제수준별로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 부부

의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는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연구와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로 나뉘어져 연구 간에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학중과 유영주(2003)의 연구에서는 기혼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많은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와 교육수준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는데 조유리와 김정신(2000)은 부부의 개인적 특성 가운데 교육수준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오경희(1997), 고정자·김갑숙(1999)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생활의 만족에 기여할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결혼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불일치한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김화자·윤종희(1991)는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박영화·고재홍(2005)도 결혼기간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김민녀와 채규만(2006)은 결혼생활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조사에서 신혼기에는 전반적인 결혼불만이 가장 적었고, 그 이후 불만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전춘애와 박성연(2003)의 연구에서도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며, 홍성례와 유영주(2000)의 연구에서는 결혼지속년수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결정짓는 변인은 아니었지만, 결혼지속년수와 결혼만족도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결혼생활의 만족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부부관계 이외의 다른 역할들이 증가하면서 부부관계에 몰입하기 보다는 다른 관계들로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부부간에 어느 정도 소원해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제수준별 비교는 특히 연구자마다 소득분류의 차이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다(홍성례·유영주, 2000). 예를 들어, 전춘애·박성연(1993)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나 결혼만족도 혹은 결혼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홍성례·유영주(2000)의 연구에서는 가족이 하층과 중층

에 속한다고 평가한 남편들이 상층에 속한다고 평가한 남편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물론 소득수준이 반드시 기혼남성의 결혼생활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완전조건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된다.

2.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

성격발달은 오랫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지만, 합의된 개념정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론접근의 논조는 각 개인은 비교적 독특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성향을 가지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러한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Zanden, 1997).

본 연구에서 고찰되는 성격은 Jung의 심리유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심리유형검사)는 Jung의 심리유형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MBTI는 네 가지의 분리된 지표의 8가지 선호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에너지 방향에 대한 선호경향인 외향과 내향,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차이점을 가지고 오는 감각과 직관(인식기능), 의사결정에 따른 선호경향인 감정과 사고(판단기능), 마지막으로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이는 판단과 인식의 성격유형으로 나누어진다(김정택 등, 2003). 이러한 MBTI는 각자가 인정하는 반응에 대한 자기보고를 통하여 인식과 판단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선호성을 알아내고, 그것이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결과들을 예측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정경숙, 1998).

성격은 대처전략과 같은 결혼생활적응의 또 다른 예측변인이다(Bouchard et al., 1998). Lussier와 Sabourin(1999)은 남성과 여성의 성격특성은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결혼생활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배우자의 성격을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관련문헌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결혼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MBTI 성격유형 분류 가운데 외향성과 내향성을 비교해 보면, 결혼한 부부 및 동거하는 커플을 대상으로 결혼의 질을 연구한 결과(Barelds, D.P.H., 2005) 외향적인 성격이 결혼의 질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한국심리검사연구소의 2001, 2002년 자료 가운데 2169명에 대한 김명준 등(2003)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재구성 분석결과에서는, 결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외향형(평균 5점 만점에 4.05점)이 내

향형(3.98점)보다, 사고형(4.05점)이 감정형(3.92점)보다, 판단형(4.01점)이 인식형(3.81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감각형(4.02점)과 직관형(4.00점)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유사하게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도 외향형(4.04점)은 내향형(3.93점)보다, 사고형(4.03점)은 감정형(3.89점)보다, 판단형(4.08점)은 인식형(3.75점)보다 높았으나 감각형과 직관형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숙(1998)의 연구에서는 MBTI 성격유형 가운데 판단형/인식형 지표의 '판단형'과 사고형/감정형 지표의 '감정형'은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밖에 외향형/내향형의 '내향형'과 사고형/감정형의 '사고형'은 갈등해결 방식에서 '회피' '통제' 방식을 취하면서 결혼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선희(2000)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은 직관형/감각형 유형이었고,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에서는 사고형/감정형, 결혼만족도에서는 판단형/인식형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어 연구들간의 결과가 상호 일치되지 않는다.

이상, 성격에 따른 결혼만족도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분적으로 일치되고 있으며, 특히 네 가지 심리유형 가운데 개인의 판단이 주로 외부세계로 향하는 외향적 성격의 사람들이 주로 내부세계로 향하는 내향적 성격의 사람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향이다.

3.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

1) 성격유형과 갈등대처방법

갈등대처방법은 관련문헌에서 '개인이 어떤 갈등상황에서 직면했을 때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방식'(이선희·전귀연, 2001), '개인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방식'(박영화·고재홍, 2005), '개인이 그 갈등상황에서 대응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양식'(김영희·정선영, 2007)으로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갈등은 결혼생활에서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부는 그 어떤 관계의 사람들보다도 자주 접촉하고 긴밀하게 공유하는 경험이 많고(Noller & Fitzpatrick, 1993), 다른 인간관계에서보다 자신을 더 많이 노출하고 더 많이 상호의존하며(Dominian, 1995), 그리고 그들의 갈등문제가 부부이외의 다른 가족원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갈등대처방법에는 개인적 또는 관계적 측면에서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법과 갈등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효과적인 부정적인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Berko 등(1997)은 갈등을 대처하는 유형에는 자신의 욕구를 고려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배려하는 정도에 따라 회피형, 타협형, 덮어주기형, 지배형, 통합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상대방을 너무 많이 고려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반대로 자신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갈등대처방법의 사용은 개인의 성격유형(정경숙, 1998; 이옥주, 2003; 이하식·김경연, 2005)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격에 따른 대처방법의 차이에 대해 장월성(2001)은 외향형의 사람들은 내향형에 비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와 '친구나 이웃을 방문'과 같은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며, 감정형 집단은 사고형 집단에 비해 '운동이나 여행 등 취미생활'을 하거나 '친구나 이웃을 방문'하는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감각형/직관형 집단과 판단형/인식형 집단간에는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용에 차이가 없었다. 김명준 등(2003)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응답은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많았으며, '다른 것을 대신하여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은 인식형이 판단형보다,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많았다. '문제가 없어지거나 끝나기를 기도하고 바란다'는 응답은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옥주(2003)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제 중심의 전략이든 정서 중심 지원이든 모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외향형의 사람들이었으며, 일단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일 경우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긍정적인 인지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

국내외의 관련문헌들에 따르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에 남편과 부인이 사용하는 갈등대처방법은 결혼만족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Yelsma(1984)은 실제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를 비교하였을 때 갈등의 존재 여부가 차이가 없었고, 갈등대처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Kurdek(1995)은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각 배우자의 결혼만족은 각 배우자가 사용하는 동의, 타협, 유머와 같은 건설적인 갈등해결전략 빈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된 반면, 대결형, 후퇴형, 방어형과 같은 파괴적인 갈등

해결전략을 사용하는 빈도와 부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유리와 김정신(2000)의 연구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 이성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을 적게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강학중과 유영주(2003)의 연구에서도 부부싸움의 대처행동이 협상방식으로 표현될 때에는 오히려 기혼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혜영과 현명호(2006)는 애착의 불안과 회피차원이 높은 사람은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 해결 효능감이 낮아 결혼불만족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박영화와 고재홍(2005)은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는 상대방의 특징이나 행동보다는 자신의 특징이나 행동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부부가 갈등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갈등대처행동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징이나 행동들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요약해서, 특정 성격유형에 따라 갈등대처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 시 자신의 욕구와 배우자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기혼 남성 197명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중소도시의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5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연구자들과 훈련을 받은 연구보조원들이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법과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지와 MBTI 성격검사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기혼남성의 연령분포를 보면 만 30세부터 59세로 평균연령은 45.8세이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47.6%, 고졸 이하가 52.4%이며, 결혼기간은 5년 미만 10.1%, 5년-20년 미만 31.7%, 20년 이상이 50.3%이다. 조사대상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층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하층 및 상층은 각각 30.3%와 10.3%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 분포는 내향형 65.5%/외향형 34.5%이며, 감각형 95.9%/ 직관형 4.1%, 사고형 83.8%/ 감정형 16.2%, 판단형 52.8%/인식형 47.2%이다.

2. 측정도구

1) 성격유형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김정택·심혜숙(1995)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성인용 MBTI 검사지 자가 채점용 GA형을 사용하였다. MBTI 검사지는 선호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지표, 즉 외향형-내향형(E-I) 21문항, 감각형-직관형(S-N) 26문항, 사고형-감정형(T-F) 23문항, 판단형-인식형(J-P) 24문항 등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요강에 따라 점수가 높은 선호성 지표를 결정하여 E/I, S/N, T/F, J/P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MBTI로 회귀분석 시에는 선호점수가 비연속 점수이기 때문에 연속점수로 수정하였다. 연속점수로 수정하는 방법은 선호유형이 E, S, T, J인 경우는 100에서 선호점수를 빼고, 선호유형이 I, N, F, P인 경우는 100에다 선호점수를 더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이 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인식형의 성격이 강하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성격이 외향형, 감각형, 사고형, 판단형 성격성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김정택 등, 2003).

2) 갈등대처방법

갈등대처방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하며, 갈등대처방법 조사문항은 Berko et al.(1997)이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갈등상황에 있을 때 평소 어떻게 부인에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갈등대처방법은 5가지 유형, 즉 갈등문제를 철회, 부정하거나 또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회피형'(예: 나는 아내와 문제가 있어도 서로간의 긴장이 일어나는 상황을 되도록 피한다), 두 사람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한 나누기 전략인 '타협형'(예: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 나와 아내의 중간 입장을 제안하는 편이다), 배우자의 소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관심사는 덮어두는 '덮어주기형'(예: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 나는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 욕구나 관심사는 덮어두는 편이다.), 배우자의 욕구는 희생시키는 대신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배형'(예: 나는 아내와 의견대립시 내 의견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통합형'(예: 나는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아내의 의견을 묻는다)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남성의 갈등대처방법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각각

.66(회피형), .67(타협형), .57(달려주기형), .60(지배형), .66(통합형)으로 나타났다.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정도를 말하며, 선행연구(정경숙, 1998)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13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점수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PC-WIN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다변량분산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t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갈등대처방법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1>, 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력별 비교에서 고졸이하의 남성 집단보다 대졸이상인 남성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

다는 선행연구(김선영, 2004; 이정은·이영호, 2000)와 맥을 같이 한다. 경제수준 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류 집단이 중류나 상류 집단에 비하여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기간을 3집단(5년 이하, 6년~15년, 16년 이상)으로 나누어 결혼만족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결혼기간 5년 이하인 남성들의 만족도가 6년 이상 된 남성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라 남성의 갈등대처방법의 일부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결혼기간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의 차이는 회피형의 5년 이하 남성과 16년 이상 남성사이에서만 나타났다.

먼저 학력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남성은 고졸이하 남성보다 타협형이나 회피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하층인 경우보다 중층이나 상층인 경우 타협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기간에 따른 갈등대처방법에 차이는 회피형에서만 일부 나타났다. 즉 결혼 5년 이하 남성은 16년 이상 남성보다 회피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서, 부부간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력과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들이 '타협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대졸 이상의 남성들과 결혼생활이 짧은 5년 이하인 남성들이 '회피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였다.

2. 기혼남성의 성격유형에 따른 갈등대처방법

기혼남성의 성격에 따라 갈등대처방법이 어떠한 지를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남성의 결혼만족도

구분	결혼만족도			
	M	(SD)	D	t(F)
학력	고졸 이하	3.50	(.70)	14.53***
	대졸 이상	3.87	(.60)	
결혼기간	5년 이하	3.94	(.79)	1.51
	6년-15년	3.64	(.63)	
	16년 이상	3.67	(.67)	
경제수준	하	3.39	(.68)	A
	중	3.78	(.63)	B
	상	3.98	(.66)	B

***P<0.001

D: Duncan's grouping

<표 2> 학력, 결혼기간, 경제수준 집단간 남성의 갈등대처방법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구분(N)		덮어주기형 M(SD)	지배형 M(SD)	타협형 M(SD) D	통합형 M(SD)	회피형 M(SD) D
학력	고졸이하(99)	3.04(.77)	3.29(.62)	3.37(.74)	3.35(.82)	3.17(.78)
	대졸이상(95)	3.24(.72)	3.24(.762)	3.60(.58)	3.29(.68)	3.48(.68)
	F	3.49	.13	5.66*	.20	7.69**
결혼 기간	5년이하(19)	3.33(.55)	3.26(.92)	3.71(.68)	3.31(.57)	3.61(.85) A
	6년-15년(75)	3.17(.76)	3.28(.69)	3.49(.64)	3.23(.68)	3.38(.72)
	16년이상(94)	3.08(.78)	3.24(.66)	3.43(.71)	3.41(.85)	3.22(.75) B
F	.97	.08	1.27	.99	2.24	
경제 수준	하(62)	3.10(.73)	3.15(.70)	3.31(.63) A	3.17(.73)	3.21(.71)
	중(109)	3.21(.78)	3.33(.68)	3.58(.69) B	3.40(.76)	3.33(.80)
	상(20)	2.98(.60)	3.35(.76)	3.59(.70) B	3.48(.73)	3.56(.50)
F	.97	1.35	3.28*	2.10	1.76	

Wilks' Lamda 값(F): 학력 .94(2.34)*, 결혼기간 .94(1.01), 경제수준 .90(1.82)*
*P<0.05 **P<0.01

<표 3> 성격 각 유형 집단간 남성의 갈등대처방법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

구분(N)		덮어주기형 M(SD)	지배형 M(SD)	타협형 M(SD)	통합형 M(SD)	회피형 M(SD)
태도	외향(68)	3.04(.74)	3.35(.79)	3.56(.66)	3.45(.78)	3.39(.78)
	내향(128)	3.19(.75)	3.22(.63)	3.44(.67)	3.25(.73)	3.27(.73)
	F	1.68	1.53	1.47	3.41	.89
인식기능	감각(188)	3.15(.74)	3.23(.66)	3.47(.66)	3.29(.74)	3.30(.71)
	직관(8)	2.79(.87)	4.20(.73)	3.70(.86)	4.04(.70)	3.66(1.33)
	F	1.84	16.43***	.88	8.11**	1.73
판단기능	사고(164)	3.10(.76)	3.25(.70)	3.48(.65)	3.33(.77)	3.29(.76)
	감정(32)	3.34(.64)	3.35(.61)	3.47(.78)	3.27(.67)	3.42(.67)
	F	2.70	.57	.00	.14	.67
행동유형	판단(103)	3.15(.79)	3.19(.69)	3.53(.67)	3.45(.77)	3.38(.73)
	인식(93)	3.13(.70)	3.35(.69)	3.42(.67)	3.18(.70)	3.24(.75)
	F	.04	2.51	1.46	5.76*	2.11

Wilks' Lamda 값(F): 태도 .95(1.85), 인식기능 .87(5.23)**, 판단기능 .97(1.17), 행동유형 .93(2.56)*
*P<0.05 **P<0.01 ***P<0.001

분석한 결과<표 3>, 인식기능인 감각형/직관형에 있어서 직관형이 지배형과 통합형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양식인 판단형과 인식형에 있어서 판단형이 통합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향적/내향적 태도와 판단기능인 사고형/감정형 비교에서는 대처방법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내향형은 외향형보다 '문제가 없어지거나 끝나기를 기도하고 바란다'는 응답이 높았으며(김명준 등, 2003), 외향형의 성격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문제 중심의 전략이든 정서중심 지원이든 모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지

적과(이옥주, 2003)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하였다.

3. 기혼남성의 성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표 4>는 성격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내향적인 남성은 외향적인 남성보다, 인식형인 남성이 판단형인 남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향형/내향형의 내향형과 결혼만족도는 부적 상관을 갖는다고 한 정경숙(1998)의 연

<표 4> 성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구분	성격 유형	(N)	결혼만족도 M(SD)	t
태도	외향형	(66)	3.85(.69)	2.68**
	내향형	(125)	3.58(.65)	
인식기능	감각형	(183)	3.65(.67)	-2.76**
	직관형	(8)	4.31(.24)	
판단기능	사고형	(159)	3.69(.66)	.58
	감정형	(32)	3.61(.76)	
행동양식	판단형	(100)	3.77(.61)	1.99*
	인식형	(91)	3.57(.73)	

*p<.05 **p<.01

<표 5> 갈등대처방법에 따른 결혼만족도

구분	뒤어주기형	지배형	타협형	통합형	회피형
	M(SD) D	M(SD) D	M(SD) D	M(SD) D	M(SD) D
하	3.55(.71) A	3.83(.56)	3.53(.72) A	3.33(.69) A	3.55(.73)
중	3.70(.65)	3.65(.68)	3.55(.65) A	3.66(.62) B	3.63(.70)
상	3.84(.64) B	3.58(.76)	4.04(.53) B	3.98(.62) C	3.78(.53)
F	2.21	1.67	15.21***	13.07***	2.56

*p<.05 ***p<.001

구와 일치하며, 성격지표 중 판단형/인식형의 행동양식이 결혼만족도와 가장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된 김명준 등(2003)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4. 기혼남성의 갈등대처방법에 따른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타협형과 통합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타협형과 통합형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사용하는 사람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적 대처를 많이 하는 남편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밝힌 조유리와 김경신(2000) 및 부부싸움의 대처행동이 협상방식으로 표현될 때에 기혼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힌 강학중과 유영주(2003)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5.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기혼 남성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배경변인과 성격, 갈등대처방법을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모델 1에서 남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편학력($\beta=.27$)과 경제수준($\beta=.25$)과 결혼기간($\beta=-.30$) 모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총설명량은 12.4%이었다. 남편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며 결혼기간은 길어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본인의 성격을 첨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남았다. 그리고 본인의 성격 중 태도($\beta=-.20$)와 행동양식($\beta=-.19$)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성격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이 4.8% 증가하여 모델 2의 총설명력은 17.2%였다.

모델 3에서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두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있었다. 또한 성격중 태도($\beta=-.15$)는 여전히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남아있었으나 행동양식은 무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처방법 중 타협형($\beta=.16$)과 통합형($\beta=.25$)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첨가되었다. 즉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는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지며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며, 성격 중 외향형일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

<표 6>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변인의 영향력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B	β	B	β	
사회인구 학적변인	학력	2.42	.27*	2.06	.23*	2.08	.23*
	결혼기간	2.42	-.30**	-.00	-.27**	-.00	-.26**
	경제수준	1.91	.25***	1.76	.23***	1.35	.18**
성격	태도			-.00	-.20**	-.00	-.15*
	인식기능			-.00	-.04	-.00	-.09
	판단기능			.00	.09	.00	.03
	행동양식			-.00	-.19**	-.00	-.08
갈등대처 방법	덮어주기형					.45	.11
	지배형					-.21	-.05
	타협형					.68	.16*
	통합형					.99	.25***
	회피형					.00	.00
상수	40.08		52.36		32.82		
Adjusted R ²	.124		.172		.298		
F값	9.46***		6.32***		7.32***		

*P<.05 **P<.01 ***P<.001

에 대한 남성의 갈등대처방법 중에서는 타협형($\beta=.16$)과 통합형($\beta=.25$)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남성의 타협적인 갈등대처방법이나 통합적인 갈등대처방법은 자신의 결혼만족도를 증가하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처방법을 첨가함으로써 설명력은 12.6% 증가하여 모델 3의 총 설명력은 29.8%였다.

기혼남성의 성격 중 외향성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매우 유사하다. 즉 Barelds, D.P.H.(2005)는 결혼한 부부 및 동거하는 커플을 대상으로 결혼의 질을 연구한 결과 외향적인 성격이 결혼의 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내향적인수록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남성이 느끼는 결혼만족도는 남성 자신의 갈등대처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그리고 성격 순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남성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남성 자신의 성격과 갈등대처방법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과에 대해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는 학력이나 경제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은 남성들, 소득수준이 높은 남성들일수록 결혼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였다. 기존의 일부 연구(예: 강학중·유영주, 2003)에서는 남성들의 학력이 결혼생활의 만족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학력은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성취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조유리·김경신, 2000) 결혼만족지각에 의미 있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오선주, 2000), 심지어 남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홍성례·유영주, 2000) 하였으나 대체로 소득수준은 결혼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춘애·박성연, 1993; 조유리·김경신, 2000). 실제로 우리나라 중년기 남성들은 생활의 제 영역 가운데 경제생활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충족치 못할 때 우울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민옥, 2006). 물론 소득이나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결혼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득과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들은 부부간 갈등 시 긍정적인 해결방식의 '타협'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가정의 주 부양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불안상황에서는 소득수준이 어떤 방식

으로든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둘째, 결혼기간은 예상대로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며, 결혼기간이 오래된 남성들이 짧은 결혼기간에 있는 남성들보다 결혼만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홍성례와 유영주(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를 살펴 본 김민녀와 채규만(2006)의 연구에서 신혼기에는 전반적인 불만이 가장 적고, 그 이후 불만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대인지각에 관한 Kenny et al.(2001; 김향련, 고재홍, 2007 재인용)의 이론, 즉 일반적으로 함께 지낸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서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부부의 결혼기간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크기는 관련성이 없다고 밝힌 고재홍·전명진(2003), 김향련·고재홍(200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볼 때 결혼기간이 늘어날수록 부인들의 자녀양육참여, 다른 사회적 역할 및 관심의 확대, 남편들의 직장생활 및 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혼생활의 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 부부갈등 시 남편이 어떤 방법으로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높여 주는 긍정적인고 효율적인 갈등대처방법이 '통합적'이고 '타협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다시 말해서, 남편들이 갈등상황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기꺼이 행동을 변화시키려 하고, 배우자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투사를 하지 않는 '타협형'(Dominian, 1995)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와 협력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욕구는 물론 배우자의 욕구도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의 방법(Berko 등, 1997)을 사용할 때 남편과 아내 모두 상호존중감을 느끼고 이것이 남성들이 결혼생활의 만족을 높게 지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연구에서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유은희, 1994; 정경숙, 1998) 및 결혼생활적응(Christensen et al., 1993)이 낮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입증되지 못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회피적' 대처는 결혼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Dominian(1995)의 지적대로 부부갈등에서 여성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하고 남성들은 피하려 하는 성별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MBTI 8가지 성격유형 가운데 에너지 방향에 대한 선호경향인 외향성/내향성이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결과는 선행 연구 가운데 높은 수준의 외향성은 결혼생활적응

(Richmond et al., 1991)과 관련되며, 외향형의 사람들이 내향형의 사람들에 비해 결혼에 대한 만족감과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를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김명준 등, 2003)와 일치한다. 이와는 달리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은 감각적/직관적 인식유형이었다는 연구결과(이선희, 2000)도 있으나, 외향적 성격유형이 내향적 성격유형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취하는데 비해, 내향형의 사람들은 갈등해결방식에서 '회피', '통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정경숙, 1998)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갈등문제를 솔직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결혼생활의 불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오늘날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했던 예전 가족에 비해 부부간의 애정 및 친밀감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이전에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결혼생활의 불만족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결혼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불평등한 경험을 해 온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측면들을 변화·수정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은 남성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연구(노민옥, 2006)에서 기혼 중년남성들의 심리적 복지(생활만족도 및 우울)는 무엇보다도 부인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한 결혼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혼남성들도 사회변화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과거의 거부장적이고 부인지배적인 태도와 행동에서 벗어나 배우자와 평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고 효율적인 갈등대처방법인 타협형과 통합형은 기혼 남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인 회피형, 지배형, 덮어주기형은 결혼만족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부부들은 평온한 시기보다 서로 민감해져 있는 갈등 시에 더욱 자신의 욕구와 동일한 비중으로 배우자의 욕구를 존중하여야 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남성들이나 부부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중년기 남성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의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남성들, 결혼초기 부부관계를 형성·확립해 나가는 남성들 모두에게 배우자와의 갈등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부갈등으로 인해 결혼관계 자체가 위협받는

것은 갈등의 크기나 정도보다는 갈등에 대한 부부의 생각이나 반응이 더욱 중요하며(Ridley et al., 2001), 더군다나 갈등 시 사용하는 갈등대처행동은 자신의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며, 그 크기에서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박영화·고재홍, 2005)을 고려하여 배우자보다는 중년 남성들 자신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외향/내향적 성격유형에 따라 기혼남성들은 결혼만족도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외향적인 사람들의 결혼만족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유형이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심리적인 선호경향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그 유형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편안한 성격유형대로 행동하는 것이므로(김정택·심혜숙, 1995) 각각의 유형들이 무엇을 외향화하고 무엇을 내향화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오해를 명확히 밝혀주며 갈등을 해소하게 할 수 있다(김정택·김명준, 1999). 이러한 측면에서 갈등해결방법에 따른 결혼만족도 향상은 상대방(배우자)보다는 개인 당사자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반면, 성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향상은 개인 당사자의 노력보다는 상대방(배우자)의 이해와 인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성격과 갈등대처방법의 영향력을 주로 살폈지만, 결혼만족도가 갈등대처방법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지적(Marchand & Hock, 2000)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성격과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격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갈등대처방법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밝히는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관계를 한층 심도 있게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 결혼만족도

참 고 문 헌

강학중, 유영주 (2003) 한국 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 기혼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2), 61-84.

고기숙, 이혁구 (2004) 중년기 직장남성의 사회적 위기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 9-41.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7(3), 1-16

고정자, 김갑숙 (1999)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6), 59-76.

김명준, 전인식, 백연정 (2003) 성격유형과 우리의 삶 CD.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김선영 (2004)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와 성격특성요인.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정선영 (2007)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65-82.

김정택, 김명준 (1999) 심리유형의 역동과 발달.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정택, 심혜숙 (1995) *MBTI 질문과 응답*.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2003) *MBTI 개발과 활용*. Myers, I. B., & McCaullley, M. H.(1985). *Theory, Psychometrics Application*.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김향련, 고재홍 (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89-105.

김화자, 윤종희 (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노민욱 (2006) 중년기 직장남성의 생활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오경희 (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10-220.

오선주 (2002) 본인과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남편과 부인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201-215.

유은희 (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 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1.

이선미, 전귀연 (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이선희 (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옥주 (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17(3), 77-85.
- 이요행, 김윤정, 오세진(2005) 기혼남녀 근로자의 결혼만족도와 조직몰입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47-460.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 패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하식, 김경연 (2005) 부부성격유형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갈등수준과 갈등해결양식.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2, 51-79.
-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 (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장월성 (2001) 주부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원인 및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 박성연 (200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191-204.
- 정경숙 (1998)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부부갈등 해결방식과 MBTI 성격유형과의 상관연구: 중졸학력 주부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혜 (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 김정신 (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광주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1.
- 조은경, 정혜정 (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6.
- 최혜경, 노치영 (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 통계청 (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홍성례, 유영주(2000)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61-76.
- Acitelli, LK, Kenny, DA, & Weiner, D (2001) The importance of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of partners' marital ideal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8, 167-185.
- Barelds, DPH (2005) Self and partner personality in intimate relationship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9, 501-518.
- Beach, S, Katz, J, Kim, S, & Brody, GH (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Berko, RM, Rosenfeld, LB, & Samovar, LA (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2n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Bouchard, G, Sabourin, S, Lussier, Y, Wright, J, & Richer, C (1998) Predictive validity coping strategies on marital satisfactio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112-131.
- Bradbury, TN, Fincham, FD, & Beach, SRH (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4), 964 - 981.
- Christensen, A, Heavy, CL, & Layne, C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Dominian, J (1995) *Marriage: The Definitive Guide to What Makes a Marriage Work*. London : Heinemann.
- Kurdek, LA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 Lussier, Y, & Sabourin, S (1999) Personality and marital adjustment: Ut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51-660.
- Marchand, JF, & Hock, E (2000) Avoidance and attacking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among married couples: Relations to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9(2), 201-206.
- Noller, P, & Fitzpatrick, MA (1993) *Communic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antice-Hall, Inc.
- Richmond, LD, Craig, SS, & Ruzicka, ME (1991) Self-monitoring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5, 177-188.
- Ridley, CA, Wilhelm, MS, & Surra, CA (2001) Married couples' conflict responses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 517-534.
- Yelsma, P (1984) Functional conflict management in effective marital adjustment. *Communication Quarterly*, 32, 145-180.
- Zander, JWV (1997) *Human Development*(6th Ed.). New York: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2008. 12. 17 접수; 2009. 3. 13 채택)